

“저팬 얀 페어”에 출품된 차별화 면사들

◎ 개성이 풍부한 면방 각사의 소재들

최근에 양모 공장이 많은 비슈 산지(備州產地)에서도 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본의 면방 각사는 “저팬 얀 페어(Japan Yarn Fair)”를 발판으로 비슈 산지에 고객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미마스사는 미에현(三重縣)의 공장에서 일본 전통의 명산품인 면 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물레를 돌려 손으로 뽑은 실 같은 원사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의 “화(和)”를 테마로 한 미마스의 부스에는 천연의 쪽으로 물들인 남색의 포럼(布簾), 모자, 기타 제품을 전시함으로써 많은 관객이 모였다.

물론 미마스가 자랑으로 하는 “나스라”, “스라롬” 등의 컴퓨터 슬립의 형상 변화사도 전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나스라의 오거닉 코튼(organic cotton)으로 만든 소재나, 퓨어 코튼(Supima 초장면)으로 만든 스라롬 소재도 새로 출품하였다.

다쓰다보(龍田紡)는 “What's new”를 테마로 컴퓨터 슬립사 “스토미 CPS”를 대표 상품으로서 앞줄에 전시하고, 실의 형상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하여 세로 180cm, 가로 60cm의 거대한 검은 색 사조판(絲條板)에 슬립사를 슬립이 뚜렷이 잘 보이게 전시하였다.

편포로 만들면 울통불통한 느낌을 주는 촉감이 특징인 니트용 특수 방적사 “GT II”는 NB(national brand)에 잘 어울려 주력 상품이 되고 있다. 수피마(Supima) 면, 캐시미어 모, 편평 레이온 “바이로프트”의 3가지 혼방 소재는

뛰어난 촉감이 특징이다. 면이 주체로 되어 있으면서도 캐시미어 같은 모미를 만들어낸 소재이다.

아사히보(旭紡)는 그 동안 전시회에 출품한 경험이 없는데, 이번 전시회에는 회사의 지명도를 올리기 위하여 참가하였다. 아사히보의 강점은 링 정방기, OE 정방기, 컴팩트 정방기 등 각종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전시 상품은 아스페로 원면으로 뽑은 “타라포트”와 오거닉 코튼 등을 원료로 한 소재를 소개하였다. 특히 섬유장이 길고, 섬도가 가늘고 부드러운 카메룬 원면으로 뽑은 “토보로”는 월간 40t을 생산할 정도로 인기 상품이다.

다이어치보는 결속 방적의 선두를 가고 있으며, IPX 방적사의 용도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이 IPX 순면사 “터프코트”는 잔털이 적고, 항필링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이어치보는 보통 결속 방적사에 30~40수 단사의 중번수 생산이 익숙한데, 80수 단사의 세번수까지도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들 실로 만든 셔츠나 파자마 등의 제품을 출품하고 이 분야에의 판매를 확대하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결속 방적사 “아사”, 이집트 초장면으로 뽑은 초극약연사 “엘나일” 등을 갖추고 있다. “엔트위쉬”는 단사인데 논토크(non-torque) 순면 무연사도 특수 전용 정방기로 방출하고 있다.

닛신보는 전번 전시회 때부터 계속 액체 암모니아 가공 면사 “슈퍼 소프트 파인(Super soft fine)”을 전시하고 있다. 액체 암모니아 가공을 원사 단계에서 하기는 매우 어려워, 실 자체에 텐션(tension)이 걸려 20수 쌍사 정도에서도 바로 끊어지고 마는데, 닛신보는 2~3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겨우 상품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단사로도 이 가공이 가능하게 되어 닛신보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은 지를 실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이와 같이 원사 단계에서의

암모니아 가공이 가능하게 되어 횡편 용도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컬러 스톡(color stock)으로 각종 색상의 재고를 갖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닛신보의 두드러진 판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방 교연사 80수 쌍사 “리프세”는 47가지 색을 갖추고 2004년부터 판매하고 있는데, 단순한 정방 교연사가 아니라 강연 타입의 원사이다. 이 외에도 타래로 실켓 가공한 60수 쌍사 “실퓨레”를 전시하고 있다. 고객의 요망에 따라서는 변수나 원면 구성 등 개별 대응으로 공급도 하고 있다.

“신나이가이멘(新内外綿)”은 다품종 소로트 단납기 시스템 “하야이 얀(早いヤン)”의 인지도가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다행히 전시 부스의 자리도 좋아 많은 관람자가 있었다. 고객의 관심을 끈 것은 타사에는 없는 형상 변화사였다. 한 올의 실에서 부분 부분에 따라 원료의 혼방 비율이나 색의 혼합 비율을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어 뜻대로 표현이 가능한 획기적인 실 “후시기 얀(フシギヤン)”은 2004년에 이어 출품하였으나 소재의 신선미를 여전히 잃지 않고 있었다.

중국의 신강면(新疆綿)으로 보은 “가레즈”는 이제까지 직물을 중심으로 전시하였는데, 고객의 요망으로 횡편 용도의 원사로서도 전시하였다. 새로 개발한 “제브라 II”는 특수 슬립사로 슬립 부분에 베이스(base) 소재와는 다른 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니트 아우터용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토추(伊藤忠)상사는 면 컴팩트사(compact yarn)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는데, 울 컴팩트사 “라나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최고급 이집트 초장면 “기자 45”를 사용한 컴팩트사도 출품하였는데, 실키 터치(silky touch)로 고급감(高級感)을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전시 담당자도 이 “기자 45”로 뽑은 컴팩트사를 보기 위하여 아침부터 설 새 없이 관람자가 몰려올 만큼 반응이 컸다고 한다.

유니치카텍스타일은 인도의 람코그룹과 제휴하여 생산하고 있는 람코의 컴팩트사 타입을 보여주었다. 람코는 수나무(雄木)와 암나무(雌木)를 따로 재배하여 인공 교배로 수확하는 하이브리드 면(hybrid cotton)을 사용하고 있는데, 섬도가 가늘고 실키한 촉감이 있으며 매끄럽고 강도가 좋은 면사를 방적할 수 있으며 광택감이 좋기 때문에 블라우스, 셔츠감으로도 정평이 있다.

도요시마(豊島)가 내놓고 있는 신강면으로 뽑은 컴팩트사는 태변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곤도(近藤)방적소의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의 면 방적 합판 “지난성등방직(濟南成藤紡織)”에서 생산하여, T-셔츠, 데님, 재킷, 팬츠용 등으로 16수~40수를 전시하고 있는데, 가격은 1kg당 500~600엔으로 사기 쉽다.

면과의 혼방 소재로서는 특수 원료를 사용한 소재도 눈에 띄었다. 닛신보는 바나나 섬유 30% 혼방사와 최근에 새로 개발한 대나무 섬유 30% 혼방사를 보여주고 있다. 신나이가이멘은 “가미도리”라는 “카폭(kapok)”과 비슷한 중공 섬유 30% 혼방사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모두 많은 관람자의 주목을 받았다. ♣